

全北日報

군산부설초, 유정 동시작가와 함께 한 북(book)콘서트 '호응'

윤이환규 | ①웹승인 2025-07-01 16:21 | ②수정 2025-07-01 16:21 | ③댓글 0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지난 30일 유정 동시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군산부설초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30일 1층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정 동시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북콘서트는 진로 교육과 관련해 작가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초청된 유정 작가는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북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동시집 발간 이후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유 작가는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으로서의 동시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한 '동시로 풍덩'이라는 시간을 통해 작가의 이야기와 아동문학가의 개념, 동시 한자로 알기, 동시 낭송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 작가의 동시집 '별처럼 꽃처럼' 주요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작가와 학생들이 함께 교감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동시가 생활에서 겪은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동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동시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에 동심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신철 교장은 "아름다운 노랫말의 다양한 동요와 동시를 접해봄으로서 아이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아동문학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도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